

# 필리핀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유석춘\*

## 목 차

- I. 머리말
- II. 가족제도
- III. 종교제도
- IV. 교육제도
- V. 결론

### I. 머리말

필리핀은 스페인의 침략이 시작되는 16세기까지 토착 원주민인 말레이 종족이 분산된 형태로 마을단위의 정치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약 100개 이내의 가구로 구성된 마을(바랑가이, barangay)에서 그 우두머리인 다투(datu)의 지도하에 친족조직을 형성하여 생활하였고 주로 애니미즘을 신봉하고 있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필리핀은 중국이나 인도의 문명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아 불교나 힌두교 혹은 유교와 같은 종교적 신념이 전파되지 않았다. 대신 15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필리핀은 남부의 술루군도와 민다나오섬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한 이슬람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1521년 마젤란이 필리핀의 세부섬에 도착한 사건은 필리핀에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슬람문명이 서구의 카톨릭문명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을 예비하는 사건이었다. 이후 필리핀은 400여년에 걸친 스페인의 식민지배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이 가톨릭을 종교적 신념으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로 받아 들이는 사회로 개종된다. 또한 미국이 스페인의 뒤를 이어 필리핀을 1898년부터 약 50년간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근대적 교육제도와 영어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차대전 기간에 잠시 일본의 점령하에 있던 필리핀은 종전과 함께 1946년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남아 있다.

필리핀의 사회제도는 오랜 그리고 다양한 식민역사를 거치면서 토착문명과 서구문명이 갈등하고 융합되어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수엘리트에 의한 정치적 과두지배 및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소유구조 등은 모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립된 필리핀 사회의 제도적 특징이다. 이 글은 필리핀의 여러가지 사회제도 중 가족, 종교, 교육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를 조건지우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가족, 종교, 교육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필리핀 연구문헌은 대부분 정치 및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sup>1)</sup> 필리핀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소홀히 연구되어 왔던 필리핀의 기본적인 사회제도 특히 가족제도, 종교제도, 교육제도를 하나하나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가족제도

필리핀의 가족제도는 기본적으로 핵가족을 단위로 한다.<sup>2)</sup> 남부의 이슬람 주민들 사이에는 다혼제(poligamy)가 존재하기도 하나, 인구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부부와 미혼의 아이들로 이루어

1) 대표적인 예로 정영국(『한국과 필리핀의 권위주의 체제변동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2), 박기덕(『필리핀 '과두민주체제'의 붕괴와 마르코스 권위주의체제 등장』, 동남아지역연구회 10월 월례발표회, 1994), 이병두(『Politics of Industrialization: the Textile Industry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Northwestern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2) 등을 들 수 있다.

2) Medina, Belen,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진 핵가족을 단위로 생활을 한다. 그러나 비록 주거는 핵가족 단위로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핵가족은 가까운 친족들과 매우 강력한 연대를 맺고 생활함으로써 기능적으로는 확대가족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준다. 3) 필리핀의 가장 일반적인 가족형태는 결혼과 함께 주거를 분리한 핵가족이 전통적으로 친족집단이 모여 사는 마을단위의 공동체내에 거주하면서 가까운 친족과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생활하는 모습이다. 필리핀에서는 친족간의 유대가 강력한 만큼 노부모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홀로 된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생기면 핵가족에 이들 및 이들의 미혼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변형된 확대가족의 형태도 많이 나타난다. 4)

필리핀 가족제도의 한가지 특이한 측면은 핵가족의 분포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5) 필리핀에서는 도시의 가구당 평균 인구가 농촌의 가구당 평균인구를 상회한다(표 4-1 참조). 그러나 그 원인은 도시 가구의 출산율이 농촌보다 높기 때문이 아니고, 도시의 가구는 핵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필리핀의 가족제도가 기본적으로는 핵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확대가족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도시지역 특히 수도 마닐라에서 핵가족 단위로 가구를 분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확대가족의 형태가 많아져서 평균가구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촌에서는 분리된 핵가족이 새로운 주거를 확보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핵가족이 보편화되어 평균가구인구가 상

3) Castillo, Gelia, *Beyond Manila: Philippine Rural Problems in Perspective*,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1979.

4) Castilo, Gelia, Abraham Weisblat, and Felicidad Villareal, "The Concept of Nuclear and Extended Family: An Exploration of Empirical Refe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9(1): 1-40, March, 1968.

5) Morada, Hector, and Monia Gregorio, *Household Structure Variation and Urbanizatio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Manila: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s Office, 1983.

대적으로 낮은 것이다.<sup>6)</sup>

필리핀 핵가족의 확대가족적 특성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거나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죽어서 홀로되면 이들은 다시 자신의 자식에게 돌아가 확대가족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필리핀의 핵가족은 결혼과 함께 성립하여 죽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유지되는 서구와 같은 종류의 핵가족이 아니고 가족의 연령구조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손쉽게 확대가족으로 전환될 수 있는 탄력적인 핵가족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핵가족제도의 유연성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필리핀의 상황에서 노인문제에 대처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필리핀의 핵가족제도의 확대가족적 기능은 혼인(conjugal)관계보다는 혈연(consanguinial)관계를 중시하는 친족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결혼과 함께 각각의 배우자는 상대방의 친족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지킬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사회적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필리핀 친족제도의 혈연관계는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 쪽만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집안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양계친족제도(bilateral kinship)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sup>7)</sup> 필리핀에서는 가족내의 권위를 부모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할 때에도 남녀 혹은 순서를 가리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한다.<sup>8)</sup> 아버지는 대외적으로 가족을 대표하고 어머니

6) Morada, Hector, and Monia Gregorio, *Household Structure Variation and Urbanizatio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Manila: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s Office, 1983.

7) 하지만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의 집안 이름을 따라 성을 붙이고 (patronymic), 어머니의 집안 이름을 가운데 이름으로 간직한다. 이러한 작명방식은 스페인의 지배 이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집안을 나타내는 이름으로서의 성의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Stoodly, Bartlett, "Some Aspects of Tagalog Family Structure" *American Anthropologist*, 59: 1957, pp.236-49 (April).

8) Medina, Belen,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p.20-5.

니는 집안일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가족내의 분업체계가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업이 권위의 차별성까지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가족 내 권위의 행사는 전통적으로 나이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한 집안의 자녀들 중 만이는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이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권위의 행사자가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이에 의한 권위의 차이가 재산의 불균등한 상속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 또한 며느리나 사위도 자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친족관계에 참여한다.

필리핀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친족관계가 혈연 및 혼인 그리고 종교적 의식이라는 세가지 기준을 따라 형성되고 있다.<sup>9)</sup> 필리핀의 친족집단은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양쪽 집안의 증조부모에서부터 증손까지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친족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고 큰 것이 특징이다.<sup>10)</sup> 또한 친족의 개념에는 카톨릭의 영아세례, 견진(confirmatio), 결혼 등과 같은 종교적 의식을 주관하는 대부(godfather)나 대모(godmother)도 포함되어 친족집단의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근대화 및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의 진행은 물론 필리핀 가족제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급자족적 경제가 상품화폐경제로 바뀌면서 나타난 가족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가족내 권위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하였지만 전통적으로 나이는 필리핀 가족의 권위구조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가족외부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근대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아 수입이 좋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연장자의 절대적 권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sup>11)</sup> 또한 여성 취업기회의 증가와 더불어 전통적인

9) Medina, Belen. 1991.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p.25-8.

10) 필리핀에서는 사돈관계(balae relationship)를 규정하는 친족용어가 발달하여 우리나라의 동서(bilas relationship)와 같은 친족용어가 존재하기도 한다. Medina, Belen.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27.

11) Acre, Wilfredo, "The Family as a Social Group: An Outline for

남녀의 가족내 역할분담도 변화하고 있다.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역할은 가사노동을 벗어나 전통적으로 남성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sup>12)</sup>

필리핀 가족제도의 변화는 가구의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표 4-1>은 평균 가구인구의 변화를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 및 농촌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평균가구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져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도시와 농촌간에 존재하던 평균가구인구의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거주지역별 평균가구인구, 1973, 1983, 1986.

거주지	1973	1983	1986
도시	6.44	5.68	5.46
농촌	6.09	5.06	5.44
합계	6.19	5.62	5.45

출처: Belen Medina,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30.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가구규모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표 4-2> 및 가족 형태별 가구구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표 4-3>에서도 재확인된다. <표 4-2>를 보면 가구인구가 1-3인 소규모 가구와 4-5인 중규모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6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욱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Inquiry" in Mary Racelis Hollnsteiner, et al. (eds), *Society, Culture, and the Filipino*. Trial Ed. Quezon City: Institute of Philippine Cultur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1975, p.212

12) Medina, Belen.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29

표 4-2: 지역별 가구규모의 분포(%), 1973, 1983, 1986.

가구 규모	1973			1983			1986		
	도시	농촌	합계	도시	농촌	합계	도시	농촌	합계
1-3	14.5	16.3	15.7	20.9	21.3	21.2	22.8	22.8	22.9
4-5	25.6	28.3	27.2	31.5	31.2	31.3	33.5	32.2	32.7
6+	59.9	55.4	57.1	47.6	47.5	47.5	43.7	45.0	44.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Belen Medina,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31.

〈표 4-3〉은 앞의 두가지 표가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필리핀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경향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이 표는 주거단위는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강력한 친족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손쉽게 확대가족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필리핀 가족제도의 유연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물론 출산율의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구학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일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근대화라는 변화와 함께 필리핀에서도 전통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고 통제하던 가족과 친족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표 4-3: 가족형태별 가구의 분포(%), 1973, 1983, 1986.

가족형태	1973	1983	1986
핵가족	72.0	80.6	83.4
확대가족	28.0	19.4	16.6
합계	100	100	100

출처: Belen Medina,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32.

도시 및 농촌을 불문하고 1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 4-4>도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기적인 가족제도의 변화추세를 잘 암시해 주고 있다.

표 4-4: 거주지역별 1인가구의 분포(%), 1973, 1983, 1986.

거주지	1973	1983	1986
도시	1.1	2.2	3.1
농촌	1.6	2.2	2.6
합계	1.4	2.2	2.8

출처: Belen Medina,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32.

필리핀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친족제도는 아이를 많이 낳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해 왔다. 강력한 가족과 친족의 기능은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늙은 후에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의 대상이거나 혹은 일종의 보험가입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여 오늘날에도 필리핀에서는 출산율이 매우 높다. 거즈만의 추정에 의하면 필리핀의 조출산율(crude birth rate)은 인구 천명당 1973년의 35.3에서 1983년의 32.8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sup>13)</sup> 또한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혹은 가구당 평균 어린이의 숫자(completed family size)도 1960년의 6.5명에서 1980년에는 5.0명 그리고 1984년에는 4.5명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1984년의 동아시아 지역의 평균이 2.3명이고 동남아의 평균이 4.1명인 사실을 감안하면 필리핀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3) de Guzman, Eliseo, "Fertility and Mortality in the Philippines: Estimates from Recent Data" Paper Prepared for th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89.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도시와 농촌의 출산율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마닐라를 비롯한 도시지역은 출산율이 낮고 농촌지역의 출산율은 높다.<sup>14)</sup>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즈만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 농촌은 도시보다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42% 높았고, 1984년에는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5)</sup> 그는 또한 1980-84 기간 농촌의 출산율은 평균 7% 감소한 반면, 도시의 출산율은 평균 12%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생활수준이 낮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교육수준이 낮아 피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sup>16)</sup>

필리핀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때 가톨릭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의 지속적인 가족계획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카톨릭교회는 인위적인 피임이나 임신중절을 반대하고 있다. 출산휴가와 소득세 공제를 네 번째 아이에게 까지만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여성 일인당 평균자녀수는 정부의 목표인 4.0명을 훨씬 상회하는 5.0명을 보여주고 있다.<sup>17)</sup> 즉 필리핀에서는 '넛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의 '단란한 가족'이라는 구호는 가족의 기능을 중시하는 필리핀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이 약화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14) Mortezo, Linda. 1982. "Differentials in Age at Marriage in the Six Regions of the Philippines" Manila: University of Philippine Population Institute. mimeographed.

15) de Guzman, Eliseo, "Fertility and Mortality in the Philippines: Estimates from Recent Data" Paper Prepared for th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89.

16) Medina, Belen.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44

17) King, Elizabeth and Lita Domingo. "The Changing Status of Filipino Women Across Family Generations" *Philippine Population Journal*. 2(1-4): (March-December), 1986. pp.1-19.

전통적인 조혼의 관습도 필리핀의 높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들어 도시의 교육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진 여자들이 결혼연령을 늦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sup>18)</sup>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촌지역과 도시빈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조혼의 관습이 지배적이다.<sup>19)</sup> 특히 가족의 성원이 많은 집안의 딸 가운데서 조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한된 가족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된다.<sup>20)</sup> 하지만 도시의 가족성원이 많은 빈민층 가구에서는 장녀가 가족의 생계를 돌보느라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한다.<sup>21)</sup>

산업의 집중과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진출이 필리핀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족구성원의 소규모화 및 핵가족화의 진척은 분명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가족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친족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리핀에서는 가족 및 친족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죽음이나 질병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가족과 친족의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경조사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패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도

18) Mortezo, Linda. 1982. "Differentials in Age at Marriage in the Six Regions of the Philippines" Manila: University of Philippine Population Institute, mimeographed. Ryder, N.B., "Fertility and Family Structure", *Fertility and Family Proceedings of the Expert Group on Fertility and Family*, New Delhi, 1984.

19) Medina, Belen,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45

20) King, Elizabeth and Lita Domingo, "The Changing Status of Filipino Women Across Family Generations" *Philippine Population Journal*, 2(1-4): (March-December), 1986.

21) Medina, Belen,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Sarmiento, Eileen, "Marital Timing Decisions of Cagayan Valley Women: An Application of Dixon Framework", *Philippine Population Journal*, 2(1-4): (March-December), 1986, pp32-59.

가족과 친족은 항상 가장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조직이다. 태풍이나 화산 혹은 지진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필리핀에서 가족과 친족의 보호기능은 필수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전통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집단이 바로 자신의 가족과 친족이며, 도시로 진출하여 소위 '성공'을 한 사람은 농촌에 남아 있는 나머지 가족과 친족들을 돌볼 의무를 다하는 사회가 필리핀 사회이다.<sup>22)</sup>

### Ⅲ. 종교제도

필리핀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종교적인 기념일과 축제행사에 광적인 열성을 가지고 참여한다. 아기 예수의 동상이 있는 마닐라의 Quiapo district는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Black Nazarene 행사를 위하여 수만명의 군중이 몰려드는 곳이다. 대부분이 도시빈민인 이 사람들은 그 날 아기 예수의 동상을 만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열성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Holy Week에는 종교적 헌신과 신의 은총에 보답을 나타내기 위해 광신적 기독교 신자들이 십자가를 직접 손톱으로 파기도 한다. 또 다른 일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All Souls 기념일에는 가톨릭 교인들이 죽은 사람들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단체로 공동묘지를 찾기도 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심성때문에 필리핀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필리핀 역사에서 조직화된 종교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한다. 스페인이 필리핀의 식민문화를 배양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교회(Roman Church)를 이용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예가 된다. 또한 필리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에도 교회를 장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미국이 지배하

22) Medina, Belen,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1991, pp.34-5.

면서부터는 카톨릭교회를 억제한 대신 개신교를 널리 퍼뜨리기도 하였다. 보다 최근에 들어서면 마르코스가 교황의 방문을 보다 정중히 맞이 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해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타도 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및 가톨릭 교회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인 것이었다.

필리핀은 전체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이다. 회교 신자는 전체 국민의 약 5% 수준에 불과할 뿐이며 이들은 모두 지역적으로 민다나오 섬 남부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과 심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sup>23)</sup> 한편 필리핀 기독교 신자들의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서 이들이 전체 국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기독교 신자들은 개신교 및 필리핀 토착 기독교 그리고 잡다한 신흥 기독교 교파를 신봉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필리핀 기독교의 다양성은 역사적인 뿌리를 따라 형성되어 왔다.

스페인인 식민지배를 시작하면서 자연현상 하나하나에 대해 별개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필리핀의 토착종교인 애니미즘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하느님이라는 기독교의 보다 전능한 신의 존재를 교회를 통해 전파하였다.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여 남부의 민다나오 섬과 루손 섬 북부의 산악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평야지방에 살던 필리핀인들은 모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거치는 동안 필리핀의 가톨릭 교회는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sup>24)</sup>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스페인에 대한 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토착 기독교 세력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Gregorio Agripay 가 일으키고 독립투사 Emilio Arguinaldo 가 지원한 필리핀 독립 교회(Philippine Independent Church)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당시 이 교회는 민족주의의 파도를 타면서 많은

23) 정영국, 「마르코스 권위주의 체제와 Moro 분리독립운동」, 『지역연구』 2(4): 1993, 겨울호, pp.31-55.

24) Bernad, Miguel, *The Christianization of the Philippines: Problems and Perspectives*. Manila: The Filipiniana Book Guild, 1972.

25) Dolan, Ronald (ed.), *Philippines: A Country Study*. Fourth ed. Washington, D.C.: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1993, p.102

수의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을 자기 파로 끌어 들일 수 있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교세의 확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들어와서 가톨릭 교회의 스페인 성직자들을 미국인과 필리핀인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 교파는 힘을 잃고 분열을 겪게 되어 지금은 세력이 약한 군소종파로 남아 있다.

토착 기독교 종파가 가장 확실한 뿌리를 내린 경우는 Felix Manalos Ysagun가 1914년에 설립한 Iglesia ni Kristo(Church of Christ)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26)</sup> 이 토착 기독교 종파는 매우 권위적이고 엄격한 교리가 특징인데, 신자들은 청렴하고 질서있는 생활을 해야 하며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은 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교회는 신자들이 바치는 기부금을 교회가 할당하고, 정치적 선거가 있으면 교회가 지지할 후보를 정해 주기도 한다. 이 교회는 2차대전이 끝난 후부터 많은 신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전쟁후에 벌어진 급격한 사회변동에서 혼란을 겪으며 의지할 곳을 찾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교회는 지금도 필리핀의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 신자의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뿌리가 단단한 토착 기독교 종파로 존재하고 있다.

다른 한편 189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배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가톨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그때까지 기독교화되지 않은 남부의 민다나오와 루손 북부의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개신교 신자로 개종시켰다.<sup>27)</sup> 이러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필리핀은 60년대와 70년대에 서구에서 번성하던 신흥 기독교 집단이 신자들을 규합하려고 지금도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은 아직까지 개신교 세력이 로마 가톨릭

26) Dolan, Ronald (ed.), *Philippines: A Country Study*. Fourth ed. Washington, D.C.: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1993, p.103

27) Pertierra, Raul, *Religion, Politics, and Rationality in a Philippine Commun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pp.174-5.

교회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전혀 넘볼 수 없는 가톨릭 왕국이다. 가톨릭교회는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도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가톨릭 교회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겪어 왔다. 28) 마르코스 정권 아래에서 교회는 독재를 묵인하는 집단과 신을 부정하고 혁명을 선동하는 공산주의자들로 분열되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과 부에 편승하고 있을 때, 민중의 열악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분파가 카톨릭 교회안에서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분열은 역으로 민중들 사이에서 좌우파의 대립을 초래하여 교회의 분열을 가중시켰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종교적 노선을 고집하여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기독교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의 내부적인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민족 민주주의자(national democrats), 사회 민주주의자(social democrats), 독립적인 운동가(independent activists), 그리고 예수교 파의 영향을 받은 개혁집단(Jesuit-influenced reformers) 등이 그들이다. 마르코스 정권 아래에서 이들 다양한 교파의 성직자와 수녀 및 평신도들은 모두 각 지방에서 정의와 민족해방의 성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였다.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운동, 인권운동, 그리고 기초기독교 공동체(BCC: Basic Christian Communities) 운동 등과 같은 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마르코스 정권에 대항하였다.

기독교 우파 또한 지역단위의 민중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선교사 조직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내세에서의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부패한 마르코스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 나갔다. 이들이 주관하는 부흥회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으며, 이들은 그 자리에서 힘을 합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자유를 수호할 것을 부르짖었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

28)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p.229-39.

만 일부 농촌에서는 이들이 지방관리와 군부의 비호 아래 가난한 농민을 동원하여 회교도, 지방운동가, 종교지도자, 공산주의자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sup>29)</sup> 이러한 일부 기독교 우파의 광신적인 행위는 물론 주류 가톨릭 교파가 관심을 기울였어야 마땅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관심을 배경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교회의 대립은 특히 기초기독교공동체(BCC) 운동의 성격규정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필리핀에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지역사회 단위의 기독교 의식화 운동인데, 남미에서 브라질 빈민을 대상으로 Paolo Freire가 시도한 소규모의 의식화 운동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 운동은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의 확립을 통하여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따르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토론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 주어 종속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해방신학적인 배경으로부터 출발한 운동이었다.<sup>30)</sup>

이러한 배경때문에 이 운동은 교회 내부와 외부의 보수적인 집단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고 심한 경우 운동의 주도자들과 추종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토지를 소유한 지역사회의 유지와 군부가 이들을 무장혁명을 기도하는 범죄집단의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우파 교회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탄압하였기 때문이다.<sup>31)</sup> 실제로 이들은 무장혁명단체인 신인민군(NPA: New People's Army)과의 연계로 인해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다.<sup>32)</sup> 하지만

29)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229

30) Youngblood, Robert, "Basic Christian Communities and the Church-State Conflict" *Deliman Review*, November-December, 1985, p.43

31)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230

32) Chapman, William, *Inside the Philippine Revolution: The New People's Army and its Struggle for Power*,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1987, pp.205-6.

이 운동은 다양한 지역사회 단위의 운동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공산주의 지하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지역사회의 자치권을 행사하여 주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BCC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갈등은 필리핀에서 기독교 교회가 제공하여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급진적인 좌파는 기독교가 사회변혁을 이끄는 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상에서 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성직자와 신도가 힘을 합하여 BCC, 인권단체, 대중조직, 정당 그리고 필요하면 무장 게릴라 단체까지도 조직하여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liberal) 혹은 보수적인 전통의 주류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에서는 보다 전통적인 교리를 따라 기독교 사회운동은 자선정신에 근거하여 이루어 질 때에만 발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좌파의 노선은 신학적인 이론보다는 실천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정립된 것이 사실이다.<sup>33)</sup> 남미의 해방신학이 필리핀 기독교 좌파의 활동에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 이론은 신학이라는 배경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실적인 사회변혁의 대안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맑스주의를 필요한 만큼 수용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맑스-레닌주의의 완전한 수용에서부터, 분석적인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견해, 그리고 비판적인 지지를 통한 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노선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필리핀 사회 민주주의나 필리핀 기독교 민주주의 등과 같은 독자적인 이념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좌파와 갈등하기도 하였다.

기독교 좌파 가운데 맑스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여 게릴라 활동에 전념한

33) Goodno, James, *The Philippine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p.231-32.



대표적인 사례에는 북부 민다나오의 Fr Frank Navarro이다.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신에 대한 믿음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학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직까지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이 없다는 사실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와 맑스주의는 인간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두 이념의 차이는 단지 맑스주의가 현세적이고 과학적인 반면, 기독교는 내세적이고 이상적이라는 사실 뿐이다".<sup>34)</sup> 이러한 맑스주의와 기독교의 결합은 좌파 기독교 지식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근거를 필리핀 사회의 현실에서 찾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고무하였다.

필리핀 기독교 가운데 가장 극좌의 성격을 보이는 노선은 기독교민족해방(CNL: Christian for National Liberation)노선이다.<sup>35)</sup> 이 조직은 1972년 마르코스가 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직전 De la Torre 및 71명의 젊은 기독교 급진세력에 의해 결성된 것으로 기독교 내부의 민족민주(national democrat) 노선이 합법적인 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었다. 마르코스가 계엄령으로 이 조직을 불법화하자 이들은 지하로 들어가 필리핀 공산당(CPP: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과 합작으로 민족민주전선(NDF: National Democratic Front)을 결성하여 기존의 교회와 마르코스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그후 이 조직은 1985년에 들어오면서 출발할 때 내걸었던 민족민주운동을 위한 교회 내부의 제도적 개혁장치라는 성격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식적인 정치활동까지도 포함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sup>36)</sup>

민족민주라는 CNL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기독교 좌파의 예는 Sr Christine Tan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녀는 마닐라의 도시빈민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진보적이고 민족주의적인

34) Guerrero, Pen(pseudonym), "Ministry in the Mountains", *Liberation*, April-May, 1987, pp.8-10.

35) Torre, Edicio, *Touching Ground, Taking Roots: Theological and Political Reflections on the Philippine Struggle*, Quezon City: Socio-Pastoral Institute, 1986, p.207

36) Christians for National Liberation, *Pilipinas: The Church in the Philippines Today*, Special Issue, February 17, 1989.

헌법개정운동집단(Con Com: Constitutional Commission)에 가담하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게 된다. 그녀는 오랜 친구인 아키노가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을 집권 우파에 끌어 들이려 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며 참여를 거부하였다. “필리핀 역사상 교회가 지금과 같이 강력한 시대는 없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교회가 자신의 강력한 힘을 민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7)</sup> 그러나 CNL의 입장과는 달리 그녀는 교회를 개혁하는 작업보다는 민중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권익을 신장시키는 활동을 도와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녀는 맑스주의의 이념에 동조하는 민족민주(national democrats) 운동보다는 Ateneo de Manila 대학의 예수교(Jesuit)파 지식인과 힘을 합하여 사회민주(social democrat) 운동을 이끌며 인권운동에 전력하고 있다.

기독교 좌파내의 이러한 분열은 교회 내외부에서 추진되어 온 개혁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마르코스 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 가운데 민족민주 노선은 사회민주 노선을 비롯한 기타의 다른 운동 노선을 무시해 왔다. 이는 아키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민주 노선과 예수교파가 교회의 보수적인 지도부와 결탁하여 필리핀의 전국적인 주교(bishop) 연합체인 전국사회봉사조직본부(NASSA: National Secretariat for Social Action)에서 민족민주파를 몰아내는 작업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sup>38)</sup>

필리핀 카톨릭 주교의 대부분은 CBCP(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the Philippines)에 속해 있다. 이 집단은 토지문제나 환경문제와 같은 쟁점에서 개혁적인 입장을 취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보수적인 성격이 지배적인 조직이다. 예를 들면 핵무기나 미군 사기지의 지속적인 사용여부와 같은 절박한 쟁점이 떠오를 때 이 집단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집단은 기존 사회경제적 체제의 도덕성을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대신 이들은 체제 내부의 부패와

37)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234.

38)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235.

같은 문제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단호한 반공주의자들로서 더러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공산주의를 섬멸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수적인 필리핀 주류 교회의 입장을 가장 분명히 대표하는 사람은 신 추기경(Cardinal Sin)이다. 그는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반대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이미지는 다소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다.<sup>39)</sup> 당시 신 추기경이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된 반 마르코스 운동을 방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나 그의 측근이 직접 나서서 마르코스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경우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후 정권이 바뀌자 그는 재빨리 아키노 정부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군부를 옹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팎의 좌파를 공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보수주의는 교회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이혼 및 가족계획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 그가 취하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고, 이는 또한 사회정의와 같은 심각한 쟁점에 대해서 그가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간접적인 척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 추기경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카톨릭의 주교들은 두가지 상반된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 하나는 사회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좌경화 압력이고, 다른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요구되는 우경화 압력이다. 이러한 상반된 두가지 압력으로부터 카톨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신 추기경을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sup>40)</sup> 필리핀 사회에서 카톨릭 교회의 주교가 받게 되는 우경화 압력의 정도는 사실 상당한 것이다. 카톨릭 주교는 대부분 각 지역사회의 엘리트 그룹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이다. 그들은 대부분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지역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도자 집

39)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236

40)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236

단과 사회적인 교류를 한다. 지도자 집단의 가정을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장례를 치루어 준다. 이들이 제공하는 기부금이 있어야 교회가 번창하며 또한 주교 자신의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기도 한다. 전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교들은 이러한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교들은 군부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군부는 좌경화된 성직자나 평신도들을 아무도 모르게 살해하거나 납치하여 실종된 것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또한 공개적으로 좌경 활동을 하는 성직자는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 범죄자 취급을 하기 때문이다.<sup>41)</sup>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물론이고 교회 내부의 보수적인 집단의 활동도 주교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Opus Dei 일 것이다.<sup>42)</sup> 이 그룹은 교황(바티칸)의 지원을 받아 마닐라 교외에 명성을 날리는 Centre for Research and Communication 라는 대규모 경제연구소 및 대학원을 설치하고 해방신학이론을 공격하는 보루로 삼고 있다. 물론 바티칸은 카톨릭 교회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수호하는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다. 바티칸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교회가 맑스주의와 결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며 감시하고 있다. 교회는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바티칸의 요구가 이혼이나 가족계획 그리고 낙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필리핀 카톨릭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진짜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교구(주교구 diocese 및 소교구 parish), 학교, 성직자, 수녀, 그리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행사된다. 필리핀의 모든 도시에는 카톨릭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 또한 각 교구(혹은 소교구)별로 교회는 사회봉사 센터(social-action centre)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센터를 통해 각 교구의 극빈자들을 도와 주어 왔고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 오면서

41)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236

42)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236

부터 카톨릭 교회는 사회봉사활동을 발전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사회봉사 활동가들은 필리핀 사람들의 가난을 경제규모의 영세성 탓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일부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소수에 의한 자원의 독점이 필리핀 전체 국민의 빈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정의의 확립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해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sup>43)</sup>

이렇게 일부 기독교 사회봉사 활동가들의 사상이 급진화되자 사회봉사 활동 자체도 해방신학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sup>44)</sup>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가 되면서는 좌파의 활동이 사회봉사 활동의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 되었다. 많은 활동가들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급진 좌파인 민족민주 노선에 동조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들 급진화된 활동가들이 전국단위나 지역단위의 사회봉사조직본부(national or regional secretariats for social action)를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노선에 동조적인 일부 주교들의 도움을 얻어 제도화된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었다. 나아가서 이들은 NASSA에서의 영향력을 발판으로 하여 BCC 활동을 지원하였고 인권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비판적 유인물을 출판하였다. 또한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을 포섭하는 대중조직을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NASSA의 활동이 좌파의 지하 무장투쟁을 지원하기도 하여 큰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NASSA의 이러한 좌경화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가 집권하고 있는 한 카톨릭 교회의 보수적 위상은 안전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추기경을 비롯한 보수적인 주교들이 좌파의 활동을 묵인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스가 물러나면서부터는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바깥으로부터 교회의 보수성을 유지시켜 주던 힘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신 추기경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보수세력은 아키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내부의 좌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sup>45)</sup> 공산주의 세력이 NASSA에 침투

43) Carroll, John and Francisco Claver, "The Pastoral Priorities of the Philippine Bishops: A Report on a Survey" *Philippine Studies*, 1st Quarter, 1984.

44)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p.236-7

45) Cabazares, Justiniano, "Social Action on Trial", *Communications*.

하였다는 보도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주교회의에서는 NASSA의 활동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NASSA의 활동영역이 사회봉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사회봉사 사업을 담당하던 부서에 집중되었다. 각 지역의 단위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국제 카톨릭 교회의 기금을 배정하는 역할을 했던 사회봉사 부서가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교회내의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고,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집단은 교회내의 중도 좌파였다.<sup>46)</sup> 그들은 NASSA가 해방신학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과격한 민족민주 계열의 통제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주교회의는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NASSA를 Claver 주교의 통제 아래 재조직하도록 결정하였다. Claver는 NASSA가 새로운 방법과 이념에 따라 자선적이고 발전적이며 해방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우리의 문제는 민중을 해방시키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민중을 해방한다고 해서 NPA 혹은 NDF와 같은 정치조직과 반드시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 또한 역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 다만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하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히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sup>47)</sup>

NASSA를 둘러싼 싸움에 패했다고 해서 급진 좌파가 제도권 교회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역단위의 사회봉사 활동이나 NASSA의 행정조직에는 여전히 급진 좌파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들은 또한 Task Force Detainees, the Ecumenical Movement for

December, 1984, pp.43-4.

46)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237

47) Goodno, James,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1991, pp.237-8.

Justice & Peace, the Phil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등과 같은 인권단체를 운영하며 강력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전국에 걸쳐 있는 교구단위의 성직자, 사회봉사활동 지도자, 종교적인 교육자, 수녀 등을 동원하여 인권남용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정치범 석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정치군사적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좌파의 관심이 되는 각종의 토론회와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개신교 교회내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조직이 존재한다.<sup>48)</sup> 각 교회의 인권창구, 대학생 및 변호사 그리고 성직자로 각각 구성된 개신교 조직, 그리고 Commission on Tribal Fillipinos 등과 같은 기구가 개신교 좌파를 구성한다. 이들은 전국에 걸쳐 있는 개신교 교회의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방적인(liberal) 노선의 필리핀전국교회협의회(NCCP: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the Phillippines)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정치는 외부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기에 충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종교인의 모든 노력이 정치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주교와 성직자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혁명가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인인 것이 사실이다.<sup>49)</sup> 필리핀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직까지 필리핀에서는 도덕적이고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에서 행사되는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더라도, 기독교의 기념일과 의식에 대해서는 거의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이러한 견해를 분명히 뒷받침해 준다.

48) Dolan, Ronald (ed.), *Philippines: A Country Study*, Fourth ed. Washington, D.C.: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1993, pp.103-4.

49) Carroll, John and Francisco Claver, "The Pastoral Priorities of the Philippine Bishops: A Report on a a Survey", *Philippine Studies*, 1st Quarter, 1984.

#### IV. 교육제도

스페인 시대의 대중교육은 필리핀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는 역할에 충실한 교육이었다. 16세기에 시작된 스페인의 식민통치는 19세기 후반(1863)에야 비로소 필리핀에서 국민학교 교육을 공식적으로 의무화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와 수녀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대중교육을 시행하여 왔을 뿐이었다. 대신 식민지배를 위한 엘리트 교육은 일찌기 자리를 잡아 제한된 숫자의 사립 중등학교 및 대학교가 식민관료와 부유한 현지 지배층의 자녀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1611년 마닐라에 설립된 University of Santo Tomas 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식민지 엘리트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스페인에 대항하는 필리핀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은 모두 '계몽된 사람'(the enlightened: ilustrados)이라고 불리웠는데, 이들은 예외없이 모두 필리핀의 부유한 집안 출신들로 식민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sup>50)</sup>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면서부터 필리핀에서도 본격적인 대중교육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스페인이 침투하지 못하였던 민다나오의 밀림, 루손의 산악지방, 술루 군도 등과 같은 필리핀의 오지에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어 마을학교(Barangay School)를 세우고 영어를 보급하며 대중교육을 전파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에서는 이 때부터 교육기회의 확대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성취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미국식의 대중교육 이념이 확립되게 되었다. 독립후에도 이러한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문자해득율을 자랑하는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sup>51)</sup>

50) Dolan, Ronald (ed.), *Philippines: A Country Study*, Fourth ed. Washington, D.C.: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1993, p.109

51) 1990년 현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자해득율은 인도네시아 77%, 말레이시아 78%, 싱가포르 83%, 필리핀 90%, 태국 93%의 순서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52)</sup> 모든 국민은 만 7살에 국민학교에 들어가 6년 동안의 의무교육을 마쳐야 한다. 그 후에는 4년제의 중등학교에 진학한다. 중등학교의 4년은 다시 두개의 2년과정으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2년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일반적인 인문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두번째 2년 과정에서는 앞으로의 진로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고 취직을 하려는 학생과, 인문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교과과정이 구분된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중등교육과정을 6년 혹은 최소한 5년과정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필리핀은 이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마치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필리핀이다.<sup>53)</sup>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은 모두 국가에서 시행하는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NCEE)을 통과하여야 한다.<sup>54)</sup> 이 시험은 전체 응시자의 상위 30%만이 통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른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가장 좋은 국립대학인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Instituto del Tercer Mundo, 1992. *Third World Guide 93/94*, p.39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비교적 최근들어 학교교육을 의무화하면서 문자해득율이 높아졌으나, 필리핀은 학교교육을 의무화한 지가 오래되어 이미 1970년에 문자해득율이 88%에 달했다. Dolan, Ronald (ed.), *Philippines: A Country Study*, Fourth ed. Washington, D.C.: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1993, p.108

52) Sanyal, Bikas, Waldo Perfecto, and Adriano Arcelo,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the Philippines*, Paris: Unesco, 1981, pp.88-90.

53) Cortes, Josefina, "The Performance and Conseque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970-85" in the Priscila Manalang (ed.), *Philippine Education: Promise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1990, p.11

54) Sanyal, Bikas, Waldo Perfecto, and Adriano Arcelo,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the Philippines*, Paris: Unesco, 1981, pp.88-90.

Diliman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서 따로 시행하는 시험 UP College Admission Test(UPCAT)를 치루어야 한다. 시험결과는 전공 별로 평가되어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Fund for Assistance to Private Education에서 주관하는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CSAT)의 결과를 입학생을 평가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규대학은 대부분 4년제이나 공과대학은 5년제이다. 또한 법학과 의학은 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하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규대학 이외에도 필리핀에는 직업교육이나 전문기능을 가르치는 수많은 국립 및 사립 교육기관이 중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1987년 만들어진 새 헌법은 국민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서 필리핀 국어인 Filipino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public of the philippine, 1990: 208). 따라서 현재 필리핀에서는 국민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사회과학을 가르칠 때 필리핀어를, 그리고 수학과 과학 등의 과목을 가르칠 때 영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필리핀어를 이용한 강의와 저술활동이 권장되고 있다. 이 헌법규정은 교육과정을 통해 필리핀 국민의 주체적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키노 정부가 제정한 것이다. 독립 이전에는 교육의 수단으로 영어만이 인정되었고, 독립 이후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지방마다 다른 필리핀 방언들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7년부터 스페인어의 사용은 금지하고, 영어와 함께 각 지방의 방언 대신 필리핀 국어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독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필리핀은 교육획득의 기회 특히 중등교육의 기회를 괄목할만큼 신장시켰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의 각급학교 취학율을 정리한 <표 4-5>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쉽게 확인된다. 대중교육을 강조했던 미국 식민시대의 전통을 이어 받아 국민학교 취학율은 이미 1960년대에 90%를 상회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80년까지 다소간의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중등학교의 취학율은 1960년 27%라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여 1980년에는

60%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학의 취학율도 같은 기간 13%에서 24%로 증가하였다.

표 4-5: 각급학교 취학율(%), 1960/61-1979/80.

학년도	국민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1960/1961	91.6	26.6	13.1
1964/1965	108.6	35.4	17.5
1970/1971	88.9	63.6	NA
1974/1975	90.3	54.2	NA
1979/1980	95.3	60.3	24.0

출처: Josefina Cortes, "The Performance and Conseque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970-85" in the Priscila Manalang (ed.), *Philippine Education: Promise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1990, p.113.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보급되고 있음은 필리핀의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간<sup>55)</sup> 교육기회의 불균형은 80년대 중반의 공립중등학교 취학율을 보여 주고 있는 <표 4-6>에서 잘 드러난다. 83/84학년도의 취학율을 보면 루손북부 지역(지역1)이 가장 높은 53.8%, 서부민다나오 지역(지역9)이 가장 낮은 10.3%로서 두 지역간의 차이는 4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이 자랑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확대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루손지역에 집중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55) 1993년 현재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마닐라 근교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National Capital Region: NCR) 및 루손북중앙부의 코딜러라 지역 자치행정 지구(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CAR), 그리고 다음과 같은 12개의 지방행정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역1은 루손 북서부의 Ilocos, 지역2는 루손 북부의 Cagayan Valley, 지역3은 루손 중부의 Central Luzon, 지역4는 루손 남부의 Tagalog, 지역5는 루손 동남부의 Bicol, 지역6은 서부 비사야스(Visayas), 지역7은 중부 비사야스, 지역8은 동부 비사야스, 지역9는 서부 민다나오(Mindanao), 지역10은 북부 민다나오, 지역11은 남부 민다나오, 지역12는 중부 민다나오를 각각 지칭한다.

표 4-6: 지역별 공립 중등학교 취학율(%), 1983/84-1985/86.

지역	1983/1984	1984/1985	1985/1986
NCR	36.2	44.5	45.5
지역1	53.8	41.1	41.7
지역2	22.1	29.4	25.5
지역3	26.1	26.8	26.1
지역4	27.3	31.3	30.5
지역5	25.2	27.4	24.3
지역6	34.4	36.1	32.3
지역7	17.4	16.6	13.9
지역8	27.9	25.5	23.5
지역9	10.3	21.9	21.3
지역10	20.5	24.7	23.1
지역11	22.8	26.5	26.1
지역12	23.2	28.1	27.5
전체	27.8	30.1	28.7

출처: Josefina Cortes, "The Performance and Conseque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970-85" in the Priscila Manalang (ed.), *Philippine Education: Promise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1990, p.114.

필리핀 사회에서 학력획득의 기회가 증가하는 경향은 국가의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7>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 일인당 교육예산의 변화를 보여준다. 학생일인당 지출된 중등학교의 교육예산은 1979년 253페소에서 1985년 361페소로 증가하였고, 국민학교의 그것은 1979년 299페소에서 1984년 491페소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일인당 예산은 1980년과 1984년에, 그리고 국민학교의 일인당 예산은 1985년에 각각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에 필리핀 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당시 권위주의 정권을 이끌던 마르코스는 모든 국가정책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필리핀을 삼류국가로 전락시켰고, 교육

정책도 예외가 되지 못한 것이다.

표 4-7: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 일인당 예산(페소), 1979-1985.

연도	중등학교	국민학교
1979	253.0	299.2
1980	195.8	312.8
1981	283.3	342.3
1982	290.0	396.6
1983	329.9	456.1
1984	312.8	491.2
1985	361.0	364.6
평균	289.4	364.6

출처: Josefina Cortes, "The Performance and Conseque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970-85" in the Priscila Manalang (ed.), *Philippine Education: Promise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1990, p.110.

표 4-8: 6(7)세 이상 인구의 학력분포 변화(%), 1939-1980.

학력	1939 <sup>a</sup> (%)	1948 <sup>a</sup> (%)	1960 <sup>a</sup> (%)	1970 <sup>a</sup> (%)	1975 <sup>b</sup> (%)	1980 <sup>b</sup> (%)
무학	57.8	43.5	29.1	18.9	11.1	9.5
국졸	37.5	47.3	55.6	59.0	59.8	56.3
중등학교졸	3.9	7.4	11.0	15.0	18.6	21.9
초급대졸	0.8	1.8	4.3	7.1	5.2	7.2
정규대졸	NA	NA	NA	NA	3.5	4.7
무응답	NA	NA	NA	NA	1.7	0.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Josefina Cortes, "The Performance and Conseque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970-85" in the Priscila Manalang (ed.), *Philippine Education: Promise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1990, p.122.

주: a) 6세이상 인구비율, b) 7세이상 인구비율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필리핀의 교육기회는 독립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표 4-8>은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939년부터 1980년까지 약 40여년 동안 6세(7세) 이상 인구의 학력수준의 변화를 보면 무학이 1939년 57.8%에서 1980년 9.5%로 감소하였고, 중등학교의 학력은 같은 기간 3.9%에서 21.9%로 상승하였다. 국민학교 학력 또한 같은 기간 전체 대상인구의 37.5%에서 56.3%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 현재 필리핀의 7세 이상 인구의 90%가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지역적으로는 어떠한 차별성을 보여 주는가를 <표 4-9>를 통해 살펴보자. 이 표는 1980년 현재 7세 이상 필리핀 인구의 학력분포를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많은 지역은 민다나오와 비사야스 그리고 남쪽 끝인 비콜 지역(즉 지역5에서 지역12까지)이고, 학력수준이 높은 지역은 루손의 중북부(즉 지역1부터 지역4까지)와 수도권(NCR)이다. 특히 수도권은 중등학교 학력과 대학 학력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필리핀은 교육기회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도인 마닐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나타난 중등학교의 취학율이 보여주는 지역적 불균형과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9: 지역별 7세이상 인구의 학력분포(%), 1980.

지역	무학	국민학교	중등학교	초급대학	대학학위	무응답	합계
NCR	1.9	35.5	34.4	15.4	12.0	0.6	100
지역1	8.6	55.2	24.1	7.4	4.3	0.3	100
지역2	9.5	62.2	19.2	5.6	3.0	0.4	100
지역3	5.1	59.4	23.8	7.0	4.2	0.4	100
지역4	6.9	59.8	22.3	6.4	4.2	0.3	100
지역5	8.0	66.8	17.5	4.5	2.8	0.3	100
지역6	8.8	60.8	20.0	6.2	4.1	0.3	100
지역7	12.5	61.8	15.6	5.7	4.1	0.2	100
지역8	11.5	54.1	16.1	4.4	2.7	0.3	100
지역9	23.6	65.0	15.0	4.7	2.3	0.2	100
지역10	7.8	60.2	21.8	6.3	3.3	0.3	100
지역11	11.7	56.7	21.6	6.2	3.4	0.2	100
지역12	28.0	45.1	17.7	5.7	2.9	0.5	100
합계	9.5	56.3	21.9	7.2	4.7	0.3	100

출처: Josefina Cortes, "The Performance and Conseque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970-85" in the Priscila Manalang (ed.), *Philippine Education: Promise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1990, p.123.

결론적으로 필리핀 사회의 학력획득 기회는 전체적으로 보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각급학교의 취학율이 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학생일인당 지출되는 교육예산도 다소의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분포하고 있음은 큰 문제거리로 남고있다. 마닐라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루손의 북부가 상대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며 비사야스와 민다나오는 상대적으로 혜택의 폭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학력획득에 나타나는 이러한 지역간의 불균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필리핀의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V. 결 론

필리핀은 분명 산업화 및 도시화라는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여전히 농업에 인구의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농촌 중심의 사회이다. 농업이 중심인 필리핀 사회에서 가족과 친족의 사회적 기능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주거형태가 핵가족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가족과 친족이라는 1차집단이 제공하는 강력한 연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필리핀에서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아직 이해관계의 분화라는 산업사회의 특징이 구조화되지 못하여 다양한 2차집단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이다. 따라서 유기적 연대보다는 기계적 연대의 원리가 아직까지도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의 미숙이라는 경제적 조건 말고도 필리핀 사회의 기계적 연대를 뒷받침하는 조건은 종교제도와 교육제도에서도 발견된다. 필리핀은 인구의 80% 이상이 로마 가톨릭을 신봉함으로써 동질적인 종교적 심성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특히 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비록 지역마다 다른 언어가 존재하고 교회내부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노선갈등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균열때문에 "We Filipino" 라는 국민의식이 침해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 까닭에 1986년 2월에는 '민중의 힘'(People's Power) 이라고 불리는 단합된 국민의 의사가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국민적 동질성으로 인해 민다나오 남부와 루손 산악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수의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분화가 국민적 동질성을 전혀 위협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의 계급혁명 투쟁은 그래서 공허하게 보인다.



## 참 고 문 헌

- 정영국, 1993. 「마르코스 권위주의 체제와 Moro 분리독립운동」 『지역연구』 2(4): 31-55. 겨울호.
- Acre, Wilfredo. 1975. "The Family as a Social Group: An Outline for Inquiry" in Mary Racelis Hollnsteiner, et al. (eds), *Society, Culture, and the Filipino*. Trial Ed. Quezon City: Institute of Philippine Cultur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Bernad, Miguel. 1972. *The Christianization of the Philippines: Problems and Perspectives*. Manila: The Filipiniana Book Guild.
- Cabazares, Justiniano. 1985. "Social Action on Trial" *Communications*. December.
- Carroll, John and Francisco Claver. 1984. "The Pastoral Priorities of the Philippine Bishops: A Report on a Survey" *Philippine Studies*. 1st Quarter.
- Castilo, Gelia, Abraham Weisblat, and Felicidad Villareal. 1968. "The Concept of Nuclear and Extended Family: An Exploration of Empirical Refe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9(1): 1-40. March.
- Castillo, Gelia. 1979. *Beyond Manila: Philippine Rural Problems in Perspective*. Ottawa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 Chapman, William. 1987. *Inside the Philippine Revolution: The New People's Army and its Struggle for Power*.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 Christians for National Liberation. 1989. *Pilipinas: The Church in the Philippines Today*. Special Issue.

February 17.

- Cortes, Josefina. 1990. "The Performance and Conseque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970-85" in the Priscila Manalang (ed.), *Philippine Education: Promise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 de Guzman, Eliseo. 1990. "Family Household in the Philippines: Current Perspectives and Future Prospects" paper prepared as part of "The Family in the Late '80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ssessments Project on the State of the Nation.
- de Guzman, Eliseo. 1989. "Fertility and Mortality in the Philippines: Estimates from Recent Data" Paper Prepared for the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Dolan, Ronald (ed.), 1993. *Philippines: A Country Study*. Fourth ed. Washington, D.C.: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 Goodno, James. 1991. *The Philipiness: Land of Broken Promises*. London: Billings and Sons.
- Guerrero, Pen(pseudonym). 1987. "Ministry in the Mountains" *Liberation*. April-May.
- Instituto del Tercer Mundo. 1992. *Third World Guide 93/94*. Uruguay.
- King, Elizabeth and Lita Domingo. 1986. "The Changing Status of Filipino Women Across Family Generations" *Philippine Population Journal*. 2(1-4): 1-19 (March-December).

- Medina, Belen. 1991. *The Filipino Family: A Text with Selected Reading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 Morada, Hector, and Monia Gregorio. 1983a. "Household Structure Variation and Urbanizatio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Statistician*. 23(1-2): 15-44.
- Morada, Hector, and Monia Gregorio. 1983b. *Household Structure Variation and Urbanizatio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Manila: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s Office.
- Mortezo, Linda. 1982. "Differentials in Age at Marriage in the Six Regions of the Philippines" Manila: University of Philippine Population Institute. mimeographed.
- Pertierra, Raul. 1988. *Religion, Politics, and Rationality in a Philippine Commun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epublic of the Philippine. 1990. *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1987-1992*. Manila.
- Ryder, N.B. 1984. "Fertility and Family Structure" *Fertility and Family Proceedings of the Expert Group on Fertility and Family*. New Delhi.
- Sanyal, Bikas, Waldo Perfecto, and Adriano Arcelo. 1981.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the Philippines*. Paris: Unesco.
- Sarmiento, Eileen. 1986. "Marital Timing Decisions of Cagayan Valley Women: An Application of Dixon Framework" *Philippine Population Journal*. 2(1-4): 32-59 (March-December).

- Stoodly, Bartlett. 1957. "Some Aspects of Tagalog Family Structure" *American Anthropologist*. 59: 236-49 (April).
- Torre, Edicio. 1986. *Touching Ground, Taking Roots: Theological and Political Reflections on the Philippine Struggle*. Quezon City: Socio-Pastoral Institute.
- Youngblood, Robert. 1985. "Basic Christian Communities and the Church-State Conflict" *Deliman Review*. November-December.